

아시아경제

## 네이버클라우드, '퀄컴·아르고스다인'과 2023년까지 드론 상용화 나선다

입력 2022.06.20. 오전 9:13 수정 2022.06.20. 오전 9:15



네이버클라우드가 퀄컴 테크놀로지, 아르고스다인과 함께 5G 드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각 사는 이음 5G를 활용한 드론용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력을 집약해 5G 드론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음 5G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와 클라우드를 결합해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엔드투엔드' 드론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아르고스다인은 클라우드 상에서 연동 가능한 드론 무인 관제 플랫폼 제공 및 '퀄컴 플라이트 RB5 5G' 플랫폼을 기반으로 5G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드론 기체 개발을 담당할 계획이다.

퀄컴 플라이트 RB5 5G는 세계 최초 드론 플랫폼으로, 소형 무인 항공 시스템에 맞춰 설계됐다. 저전력의 이기종 컴퓨팅과 AI, 5G 및 와이파이6 기술이 특징으로, 장거리에 우수한 연결성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사용자는 AI 프로세싱

연동을 통해 어디서든 사이버 및 데이터 보안을 관리하는 동시에 드론 안전 요건을 끊임 없이 제어할 수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김태창 사업총괄은 "5G 클라우드는 디바이스간 초저지연 통신, 실시간 분석·처리 및 서비스 적용이 가능해 무인 드론 운영 환경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며 "국내 첫 이음5G 사업자로서 자사가 보유한 기술과 비즈니스 역량을 극대화해 고객 니즈에 맞는 최적화된 클라우드 기반의 드론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오형 쉐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 "당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비즈니스 역량을 동원해 이음5G를 활용한 국내 5G 드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의 발전 및 확장에 기여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했다.

정승호 아르고스다인 대표는 "그동안 자체 개발한 드론 자율비행과 무인운영 시스템을 인정받아 쉐컴 및 네이버클라우드와 5G 드론으로 협력하게 됐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된 드론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각 사는 2022년 하반기에 시제품을 선보이고, 기술검증(개념 증명, PoC)을 시행할 전략이다. 이후 2023년을 목표로 상용화 제품 출시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진(promotion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05523>

---